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Vision 2033 보고서

김봉석^{1)*} · 문덕수^{2)*} · 곽영숙³⁾ · 홍민하⁴⁾ · 반건호⁵⁾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교실,¹⁾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²⁾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교실,³⁾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⁴⁾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교실⁵⁾

A Report on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ision 2033 Survey

Bongseog Kim, M.D., Ph.D.^{1)*}, Duk-Soo Moon, M.D.^{2)*}, Young-Sook Kwack, M.D., Ph.D.³⁾,
Minha Hong, M.D., Ph.D.⁴⁾, and Geon Ho Bahn, M.D., Ph.D.⁵⁾

¹⁾Department of Psychiatry, Sanggye Paik Hospital, School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Metropolitan Children's Hospital,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Dankook University Hospital, Cheonan, Korea

⁵⁾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is an analysis report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KACAP), Vision 2033 Survey”.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by the planning department of KACAP and sent to KACAP members from 2012 to 2013. This survey consisted of six categories : membership, academic activity, journal publication, administrative system, fellowship training program, and future planning. The response rate was 40.5%. In addition to multiple choice questions, responders also described their own ideas and suggestions regarding KACAP.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for planning the vision 2033 of KACAP.

KEY WORDS : Vision · Future · 2033 · KACAP.

서 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013년에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학회는 1983년에 ‘한국소아정신과연구회’로 출범하여 1985년 7월 17일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로 개명하였다.¹⁾ 1986년 11월 2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칙이 결정되면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로 정식 발족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였다. 본 학회의 학술지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1990년 창간하여²⁾ 연 1회 발간하다가 1996

년부터 연 2회로 늘려 발행하였으며, 2008-2010년은 연3회, 2011년 이후 현재 연 4회 발간 중이며, 2009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다. 1996년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 수련심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1997년부터 한국소아청소년 정신분과 전문의 제도가 수립되었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 수련프로그램은 2003년 7개 수련병원에서 2013년 18개 수련병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 속에서 2013년 현재 본 학회 회원은 전문정회원 194명, 일반정회원 206명이며, 2013년 한해 동안 29명(1년차 19명, 2년차 10명)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가 정규수련을 받았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주동이 되어 창립된 인접분야 학회로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89년), 한국자폐학회(1993년)가 있고, 1997년 이시형을 중심으로 창립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도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³⁾ 국제 학회로는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등과 협조하여 아시아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Asian

접수완료 : 2014년 2월 20일 / 수정완료 : 2014년 8월 28일

심사완료 : 2014년 8월 30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Geon Ho Bah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872, Korea

Tel : +82.2-2-958-8556, Fax : +82.2-957-1997

E-mail : mompeian@khu.ac.kr

*공동 제1 저자.

Society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s)를 창립하여 1996년 일본 도쿄에서의 제1회 Congress에 이어서, 1999년에 서울에서 제2차 Congress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1st Asian Congress on 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아시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학술활동에 본 학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국제무대의 역할을 확대 중에 있다.

이처럼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 특히 공교육 붕괴, 가족체계의 변화와 붕괴현상을 겪고 있다. 부모 이혼, 다문화 가정의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왕따 및 청소년 자살, 학교거부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정신건강,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학회 산하 기획위원회(2012-2013년도 회기)에서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본 학회 회원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창립 50주년이 되는 2033년을 바라보면서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Vision 2033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50주년을 위한 설문조사”를 기획하였다.^{4,5)}

방 법

본 설문지는 1) 회원 자격, 2) 학술 활동, 3) 학술지 및 출판, 4) 학회 운영, 5) 전임의 교육, 6) 미래에 대한 제언 등 여섯 가지 세부 분야에 대한 30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는 2013년 8월 31일부터 소청학회 회원 400명(전문정회원 194명, 일반정회원 20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과 2013년 본 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설문지 배부를 하였으며, 11월 9일까지 설문지 회수를 마감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162명의 연령별 비율은 30대 29.0%, 40대 44.4%, 50대 14.2%, 60대 4.9%, 70대 0.6%, 미상 6.9%였으며, 본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률은 40.5%였다.

이후 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설문지의 각 항목을 토의하여 정리하였다.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고, 많은 회원들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자 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결과 및 논의 : Vision 2033의 여섯 분야

1. 회원 자격 분야(Table 1)

회원관련분야의 설문조사에서 본 학회의 전문정회원과 일반정회원을 지금처럼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자격’의 유무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정회원 구분이 필

Table 1. “Membership”, results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ision 2033 Survey

I. Membership	
Questions	Results
1. Classification of membership as professional and general	Needed (85.2%) Not needed (14.2%)
2. Regarding classification of membership and sign up of allied professionals	Classification of this doesn't make it difficult for allied professionals to sign up (51.9%) Classification of this makes it difficult for allied professionals to sign up (47.5%)
3. Necessity of allied professionals to sign up as full members	Needed (51.2%) Not needed (46.9%)
3-1. Time to sign up, if necessary	Right after acquir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adjacent areas (24.1%) Within 5 years of engaging in adjacent areas (20.4%) Within 10 years of engaging in adjacent areas (8.6%) Within 20 years of engaging in adjacent areas (1.2%)
4. Proper sum of life dues	0.5 million KRW (47.5%) >1 million KRW (46.3%) >1.5 million KRW (3.1%) >2 million KRW (0.6%)
4-1. Need additional payments for already-paid members, if life sum raised to 1 million KRW	Additional payments are necessary (71.6%) Additional payments are not necessary (21.6%)
5. Measures to manage the members who don't participate in the academy or who deteriorate it	Needed (50.6%) Not needed (46.3%)

KRW : Korean Won

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85.2%). 전문정회원, 일반정회원, 특별회원의 구분이 인접분야 전문가의 본 학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51.9%)는 의견이 그렇다(47.5%)는 의견보다 조금 앞섰다. 인접분야 전문가를 정회원으로 할 필요성에서는 필요하다(51.2%)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46.9%)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고, 필요한 경우에서 인접분야 전문가의 본 학회 정회원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인접분야 자격 취득 후 즉시(24.1%), 인접분야 종사 5년 이내(20.4%)가 적절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2004년부터 본 학회에 도입된 평생연회비제도의 적정액수에 대해서는 50만원(47.5%), 100만원(46.3%)이 비슷한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고, 향후 10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는 이미 납부한 회원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71.6%)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50.6%)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46.3%)보다 약간 앞섰다.

Table 2. "Academic activity", results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ision 2033 Survey

II. Academic activity	
Questions	Results
6. Management of members who don't participate in the general meeting or conference	Needed (57.4%) Not needed (41.4%)
6-1. Measures to manage the members	A letter of attorney for the general meeting (or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shall be considered as participation (37.7%) Extra charges will be imposed on those who participate less than twice a year (12.3%) Reduced charges will be imposed on those who participate more than twice a year (11.7%)
7. Reasons of the low participation rate of the full members (multiple responses)	Geologically distant (25.3%) Difficult to make human networks with the academy members (25.3%) Proper promotions could not be realized (21.6%) The academy programs are not helpful in actual clinical practice (20.4%) The academy programs are not interesting or they are difficult (9.9%)
8. Regular academic meetings of the full members	Needed (77.2%) Not needed (18.5%)
9. The frequency and contents of training education for specialists	Current training educations are appropriate (71.6%) The frequency should be increased (14.8%) The entry fee is not appropriate (11.7%) Theme of lectures for specialist educations is not appropriate (6.8%) The contents are so difficult for specialists (3.7%)
10.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ducations for psychiatric residents	The present condition is satisfactory (48.1%) The weigh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ducations should be increased in general psychiatry (34.0%) It'd be better to minimiz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ducations in general psychiatry (16.7%)
11. Measures for this academy to get closer to general psychiatrists interested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ducations (opinions)	1) Encourage participations by forming the atmosphere that any members of Korean Psychiatric Association can participate (training educations practically helpful to general psychiatrists, etc.) 2) Publish newsletters through the online (introduce major papers, updates, guidelines, etc.) 3) Resolve the themes that require to be urgently handled at clinical setting and in society 4) Educate medical residents on child development in the level of academy 5) Create the atmosphere that supportive programs (foreign academies, etc.) and decision-making of the academy do not only focus on university professors, executives or professional full members 6) Activate academic meetings in the level of regional units

2. 학술 활동 분야(Table 2)

본 학회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한 회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4%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41.4%보다 많았다. 하지만 참여횟수에 따라 학술회비를 할증(12.3%)하거나 할인(11.7%)하는 방안보다는, 위임장을 참석으로 간주하여 참여를 높이는 의견(37.7%)이 많았다. 정회원의 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25.3%), 인적 교류가 어렵다는 의견(25.3%)에 이어, 홍보 부족(21.6%), 실제 임상에 큰 도움 되지 않거나(20.4%), 재미가 없거나 어렵다(9.9%)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정기적인 학술모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77.2%)이 대다수였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이유들을 고려하여 총회 및 학술대회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적인 실기에 중점을 두는 전문의 연수교육은 현행과 같은 연 1회가 적당하다(71.6%)는 의견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공의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교육의 비중은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48.1%)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교육의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34.0%)는 의견이 비슷하였고,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16.7%)도 있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에 관심 있는 회원에게 본회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14개의 자유의견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통한 참여장려, 2) 인터넷을 통한 뉴스레터 발간, 3) 임상 현장과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주제 해결, 4) 전공의 수련과정에 소아발달에 대한 학회 차원의 교육, 5) 학회의 지원 프로그램(해외학회 등)과 의사결정이 대학교수와 이사진, 전문정회원에만 집중되지 않는 분위기, 6) 지역 단위

Table 3. "Journal publication", results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ision 2033 Survey

III. Journal publication	
Questions	Results
12. The areas tha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JKACAP)' desires to examine more in depth (multiple responses)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books (37.7%) Case discussion (35.8%) Theory and practice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0%) Play therapy (29.6%)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29.6%) Psychotherapy (29.0%) Review of seminars inviting foreign scholars (29.0%) Review of foreign researches (27.2%) Reports of participations in international academic meetings (25.9%)
13. Measures to increase paper submissions (multiple responses)	Make new members submit papers out of obligation (36.4%) Encourage professionals from adjacent areas such as psychology or humanities to submit papers (28.4%) Pay incentives to those who submit papers to 'JKACAP' (28.4%) Encourage general psychiatrists, who belong to other academies, to submit papers (27.8%) Increase the mandatory number of article from one to two for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 membership (16.0%)
14. Necessity of new English journal for application of SCI	Needed (82.1%) Not needed (13.6%)
14-1. Time to change as an English journal	Immediately (38.9%) Within 5 years (34.0%) Within 10 years (8.6%)
14-2. Necessity of English and Korean journal at the same time	Needed (64.8%) Not needed (19.8%)
15. The main body of academic journal publication	Proceed with publication having the independent editorial rights after making a contract with a publisher (58.0%) This academy shall manage a publisher itself (20.4%) A publisher makes sub-brands, and then members or academy purchase certain numbers (14.8%)
16. Intention to join in writing or translation of books by 'KACAP'	Yes (50.6%) No (43.8%)

KACAP :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CI : Science Citation Index

의 분과 학회 모임 활성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3. 학술지 및 출판 분야(Table 3)

먼저 본 학회의 학술지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루길 희망하는 영역에 대한 복수 응답을 받았던 설문에서는 국내외 서적 고찰(37.7%), 증례토의(35.8%), 이론과 실제(34.0%) 등의 의견과 더불어 놀이치료(29.6%), 인지행동치료(29.6%), 정신치료(29.0%), 외국학자 초청세미나 고찰(29.0%), 외국논문 고찰(27.2%), 외국학회 참석기(25.9%)의 응답을 보였다.

학술지에 대한 투고 논문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묻는 복수 응답 설문에서는 신입 회원들의 의무적 논문 투고 방안(36.4%), 인접분야 전문가들의 투고 권장(28.4%), 투고 논문에 대한 보상(28.4%) 등의 응답을 보였다. 학술지의 향후 SCI 학술지 등재여부에는 필요하다(82.1%)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전환시기는 당장(38.9%), 5년 이내(34.0%)의 응답을 보였으며, SCI 학술지로의 전환 후에도 국문 학술지는 필요하다(64.8%)는 의견이 다수였다. 자유의견으로 SCI 전환에 대해 학회 규모 및 여력에 대한 우려와 국문 학술지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도 추가적으로 개진되었다. 향후 학술지가 SCI 학술지로 전환하게 된다면, 본 학회의 역량 및 준비과정에 드는 시간과 국문 학술지의 존속 필요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지 출판의 주체에 대해서는 본회가 출판사와 계약을 하여 소아청소년관련 신서 시리즈를

독자적 편집권을 갖고 진행한다(58.0%)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고, 본회에서 직접 출판사 운영(20.4%), 출판사와 계약하여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 후 학회나 회원이 손실 보전을 한다(14.8%)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출판 사업에 저술 및 번역 작업에 회원들의 참여의향은 있다(50.6%)가 없다(43.8%)보다 다소 앞섰다.

4. 학회 운영 분야(Table 4)

우선 학회의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제약회사 등)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들이 찬성(77.2%)하였다. 현 학회 사무국의 확장/이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52.5%)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고, 적절한 시기에 확장/이전(18.5%), 현 위치의 확장(16.0%)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만약 사무국을 확장하는 경우는 실평수 기준 30평 이내(50.0%)에 절반의 회원이 응답하였고, 사무국 위치는 현 위치(38.9%)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이전할 경우에는 서울 고속터미널 부근(17.3%), 서울역 부근(14.8%), 서울 교대역 부근(12.3%) 등의 의견이 있었다.

5.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임의 교육 분야(Table 5)

2013년부터 2년으로 정한 현재의 전임의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2년 필수과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5.7%였으나, 2년의 필수 교육에 반대가 17.9%, 2013년 이전처럼 1년 필수과정 이후 부가수련으로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34.0%로서, 앞으로

Table 4. “Administrative system”, results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ision 2033 Survey

IV. Administrative system	
Questions	Results
17. Financial help from external organizations (e.g., pharmaceutical companies)	Agree (77.2%) Disagree (18.5%)
18. Expansion/move of the office of KACAP	Expansion/move of the executive office is not necessary (52.5%) Expand/move the present executive office at a proper time (18.5%) Expand the present executive office by additional purchase of studios at the same location (16.0%)
19. Size of the office (based on actual acreage)	Within 100m ² (50.0%) 100-132m ² (25.3%) 132-165m ² (3.1%) More than 165m ² (1.9%)
20. Location of the office in the future	Current place (38.9%) Seoul Express Bus Terminal (17.3%) Seoul Station (14.8%) Kyodae Station (12.3%) Yangjae Station (6.2%) East area of Seoul (2.5%) Gwanak area of Seoul (1.2%)

KACAP :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Table 5. "Fellowship training", results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ision 2033 Survey

V. Fellowship training	
Questions	Results
21. Regarding mandatory fellowship program for two years	Agree on the two-year compulsory course (45.7%) One year of compulsory course and additional training as before 2013 (34.0%) Disagree on the two-year compulsory course (17.9%)
22. Measures for the training institute with wageless fellows	Acknowledge external part-time employees within the range that doesn't affect trainings (61.1%) Maintain the current status (26.5%)
23. Maintain specialist qualifications through training educations and the CME course	Needed (75.9%) Not needed (19.8%)
23-1. Maintenance measures, if necessary	Participate in training educations/CME course more than once a year (45.1%) Apply an annual scoring system to training educations/CME course (19.8%) Participate in training educations/CME course once per two years (12.3%)

CME :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본 학회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전임의 교육기간과 수련방법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임의 과정이 무급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촉탁의를 인정한다(61.1%)는 의견이 다수였고,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26.5%)은 많지 않았다. 추가적인 자유의견에서는 전임의 과정의 경제적 활동을 인정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연구비, 펀드, 원내 기금 등) 급여 지급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정식 유급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세부전문의 자격 유지를 위하여 연수교육,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과정 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는 필요하다(75.9%)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자격 유지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 1회이상 연수교육/CME 과정 참여(45.1%)가 가장 많았고, 연간 평점제(획득 평점 평가)로 유지(19.8%), 2년간 1회의 연수교육/CME 참여(12.3%) 의견이 뒤를 이었다.

6. 미래 분야(Table 6)

향후 소아청소년정신의학에서 주력해야 할 질환 혹은 증상에 대해서는 internet addiction(34.0%), school refusal(30.9%), ADHD(29.0%), attachment disorder(13.6%), Tourette disorder(4.3%)의 순서로 응답을 보였다. 앞으로 주력해야 할 증상으로 생각되는 internet addiction, school refusal은 사례에 따라 심층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학회 차원의 학술활동, 임상 연수교육, 근거중심적 치료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인터넷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의 IT 수준을 고려하면, 풍부한 임상 경험과 자료 축적을 통해 범 세계적 연구 주도가 가능할 것이다.

학교정신보건사업, 학습부진아 돕기 사업 등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방향에 관한 26개의 자유의견들을 요약하면 1) 학교, 교사, 정신보건센터에 교육과

자문 등을 통한 연계, 2) 국가 교육사업에 학회를 통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연계, 3)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정책제안, 4) 자체 워크숍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및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제작, 5)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등과 같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소아광역정신보건센터, 해바라기센터, Wee센터 등에 전문의 상근에 대해서는 참여해야 한다(51.9%)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40.7%)는 의견의 이유로는 낮은 봉급(22.8%), 공무원/비정규직에 대한 비선호(16.7%), 전문의 정체성의 문제(14.8%)의 응답이 있었다. 소아청소년과(특히 소아신경과), 가정의학과 등과의 상생에 대한 설문에서는 특별한 노력은 불필요(61.1%)가 과반이상의 응답을 보였고, 공동으로 워크숍/연수교육 개최(32.1%)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및 인접분야에서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학회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 예정인 검사도구들의 유료 사용 의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유료로 사용하겠다(88.3%)의 의견을 보였다. 앞으로 회원들이 임상과 연구에서 유용한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의 개발 및 보급이 학회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를 위해 새로 개척해야 할 분야에 대한 16개의 자유의견을 5개 분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분야에서는 뇌신경영상연구와 뇌신경 발달,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가 포함된 아동발달에 대한 코호트 연구, 둘째, 환자진료 면에서는 성인 ADHD, 인터넷 중독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접근과 병적 진단이 없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셋째, 교육 측면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기술 집단 교육자료 개발, 비약물치료 설명서 개발 및 보급, 넷째, 법 정신의학 및 장애 평가 분야에서는 사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야와 사고후유증에 대한 평가 및 치료, 다섯째, 국가 정책 참여에

Table 6. "Future planning", results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ision 2033 Survey

VI. Future planning	
Questions	Results
24. Disorders or syndromes that KACAP should have a concern in (multiple responses)	Internet addiction (34.0%) School refusal (30.9%) ADHD (29.0%) Attachment disorder (13.6%) Tourette disorder (4.3%)
25. Ways to participate in the big projects such as school mental health, or helping children with underachievement, etc. (personal opinions)	1) Associations with schools, teachers, and mental health centers through educations and consultations 2) Establishment of the bridge between government-driven projects and KACAP 3) Suggestions of public hearings and policies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 4) Enhancement of internal capability through independent workshops, and works on guidelines and manuals 5) Systematical supports by using regional networks
26. Regarding full-time job of child psychiatrist at child mental health centers, sunflower centers, or Wee centers, etc.	Should participate (51.9%) No intention of participation (40.7%)
26-1. Reason not to participate	Low wage (22.8%) Non-preference for jobs in the civil service/temporary positions (16.7%) Concerns of specialists' identity (14.8%)
27. Strategies of co-prosperity between KACAP and pediatricians/family physicians/etc.	No need of special efforts (61.1%) Hold joint workshops or training educations (32.1%) Perform activities by organizing small research societies (0.6%)
28. Intention to use the diagnostic tools licensed by KACAP with payment	Will use (88.3%) Will not use (8.6%)
29. Personal opinions about newly cultivated issues	1) Research - Neuroimaging study, brain development - Cohort study on child development including mental health evaluations 2) Clinical practice - Diseases related to adult ADHD, internet addiction, etc. - Find and help children who have minor mental problems even though not compatib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3) Education -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related to parenting skills - Develop and spread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manuals - Treatment guidelines for relational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peers, parents, teachers, etc.) 4) Forensic psychiatry and disability evaluation - Psychiatry in court (i.e., divorce, separated families, abuse and neglect, and complications of accidents) - Evaluations and treatments of accidents 5) Participation as a national policy maker - Political approaches to school mental health (school violence, bullying, suicide, etc.) -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chool personality education
30. Proposals and advice for KACAP	1) Stability and maturation 2) Smooth communications internally and externally 3) Fast and slow motion for KACAP policies and management 4) Modify the professional membership to access easily 5) Open policy for allied professionals 6) Tactics for non-Seoul metropolitan members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KACAP :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대해서는 학교정신보건과 인성교육 개발과정에 참여 등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회에 바라는 제언에 대한 9개 자유의견들의 내용들은 대체로 1) 내실이 있고 성숙한 학회, 2) 내부 의견 수렴 및 외부와 소통이 잘 되는 학회, 3) 학회 정책 및 운영의 속도 조절, 4)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정회원제도 조정, 5) 비회원들에게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6) 지방 개원의 회원들의 참여를 위한 배려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결 론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의 과거와 현재를 결산하면서, 다가오는 2033년의 준비를 위한 기획설문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바람과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정회원제도의 필요성과 조정 방안, 학술 활동의 참여와 전공의와 전문의 교육, 학술지의 투고방향 및 SCI 전환여부, 학회의 행정 운영, 전임의 교육 과정 개선, 향후 주력해야 할 분야 및 사회적 참여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들과 바람이 앞으로 2033년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는 본 학회의 성장

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 전망 · 미래 · 2033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 감사의 글

학회에 따뜻한 애정을 갖고 설문에 응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자유의견을 성심 성의껏 개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References

- 1)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00 Years of Psychiatry in Korea. Seoul: Jungang Munhwasa;2009. p.310.
- 2)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 History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912-2007. Seoul: JIN Publishing Co.;2008. p.130.
- 3) **Hong KE.**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a review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3;14:139-149.
- 4) **Lee JS, Kang YM, Lee HK, Kim YS.** Report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is Vision 2030 Survey. Psychoanalysis 2012; 23:79-86.
- 5) **MacIntyre JC.** Back to Project Future: plan for the coming decade. Washington, DC: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4 [cited 2013 Oct 23]. Available from URL: http://www.aacap.org/AACAP/Member_Resources/Back_to_Project_Future/Home.aspx